

안규백, 필리핀·노르웨이·네덜란드와 양자회담…韓美日 안보협력 중요성도 확인(종합)

등록 2026.05.30 21:21:22



[서울=뉴시스]30일 오후(현지시간)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,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(사진=국방부 제공) 2026.05.30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박준호 기자 =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(상그릴라 대화)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(현지시간) 길베르토 테어로도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, 역대 정세와 양국 국방-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.

안 장관은 이날 오전 회담에서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,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에 기반한 필리핀 안보역량 강화에 대한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.

특히 안 장관은 아시아 국가 중 6·25전쟁에 최초로 참전해준 필리핀에 사의를 표하고, 양국이 방산협력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.

안 장관은 북한의 핵·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·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역내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,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필리핀의 지지를 당부했다. 양 장관은 지난 3월 정상회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.

안 장관은 같은 날 토레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부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양국의 국방·방산협력 확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.

안 장관은 산드빅 장관과 한반도 및 인태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, 북한의 핵·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·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. 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지를 당부했다.

양 장관은 올해 1월 노르웨이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사업에 '천무'가 선정되는 등 지속 확대 중인 양국의 국방 및 방산협력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소통과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.

아울러 안 장관은 이날 딜란 예실괴즈-제게리우스 네덜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.

양측은 고위급 교류, 해양안보, 국방과학기술, 군사 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·방산협력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.

또한 한반도와 유럽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, 북한의 핵·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·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. 안 장관은 네덜란드가 6·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적 우방국이며, 현재도 유엔사 회원국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.

한편 안 장관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린 상그릴라호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(국방부) 장관,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반도 평화 및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.

이날 3국 장관은 특정 현안이나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별도 회담을 개최하진 않았으나 서로 환담을 나누면서 기념 촬영을 하며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.

안 장관은 이날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도 별도로 기념촬영을 가졌다.



[서울=뉴시스]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(현지시간)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만난 달란 예 실괴즈-제게리우스 네덜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. (사진=국방부 제공) 2026.05.30 *재판매 및 DB 금지

©공감언론 뉴시스 pjh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